

상호본문성을 반영하는 성서 번역 —히브리서 12:15하의 우리말 번역과 표기를 중심으로—

조재천*

1. 들어가며

신약성서를 해석하는 데 성서 내 주해(inner-biblical exegesis), 혹은 보다 넓은 범주로 말하자면, ‘상호본문성’(intertextuality)의 중요성은 막대하다. 성서 저자들은 자주 다른 문헌으로부터 문장을 그대로 따오거나 아니면 내용과 모티프를 활용해서 저술했다.¹⁾ 성서학에서 상호본문성의 성격과 작동방식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오래되었고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확립될 정도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²⁾ 그러한 연구의 유익은 명백하다.³⁾ 하지만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PhD in Christianity and Judaism in Antiquity).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jc.cho@ttgu.ac.kr.

- 1) 다른 문헌을 사용한 방식에 따라 성서의 상호본문성은 흔히 세 종류로 구분되며, 두 본문 사이의 일치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인용(quotation), 암시(allusion), 그리고 반향(echo)이라고 불린다. 반향은 구약 본문과의 밀접한 언어적 유사성 없이 단지 이야기의 줄거리나 모티프를 사용하는 것이고, 암시는 특정 본문을 염두에 두지만 여위나 문장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며, 특정 본문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인용이다. 하지만 이런 정의조차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고, 설사 개념 정의에 동의하더라도 막상 성서에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학자마다 다른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은 G. K. 빌(G. K. Beale), 『신약의 구약사용 핸드북』, 이용중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71-79 참조. 한편, 헤이즈(R. B. Hays)는 이 세 종류 중에서 가장 등한시 되었던 반향이 바울서신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해서 학계의 논의를 촉발했고(*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최근에는 같은 관심을 복음서에 적용한 *Echoes of Scripture in the Gospel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를 출판했다.
- 2)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대표적 자료로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가 있다(우리말 번역: 『신약의 구약사용 주석 시리즈』, 김용재 외 5명 공역, 전 5권 [서울: CLC, 2012]). 최근까지의 상세한 참고문헌은 G. K. 빌, 『신약의 구약사용 핸드북』, 249-274를 참조할 것. 국내 학자 중에는 김경식 박사(Ph.D., University of Aberdeen)가 신약 및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에서 시 62:13의 사용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했다(*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Works: Judgment According to Works and Psalm 62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ZNW 178 [Berlin: de Gruyter, 2010]).
- 3) 우선 성서 저자들이 왜, 어떻게 다른 문헌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성서의 신학적 특

그 유익을 성서의 독자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성서 본문에서 상호본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번역이 상호본문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면, 독자는 혼자 힘으로 그 성서 구절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다. 설교자의 고유한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문의 세밀하고 미묘한 결을 전달하지 못하는 ‘둔한’ 번역 성서로는 청중이 설교자와 제대로 교감하기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번역 성서에서 상호본문성의 표기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상호본문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규명이 번역문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⁴⁾ 번역의 기초 작업은 어의 파악이고, 고대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용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상호본문성이 개입된 본문의 경우 사용된 본문의 문맥 내에서 해당 어휘의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신약에 사용된 구약 본문의 원 문맥과 그 문맥에서의 어휘들의 쓰임은 다른 모든 “사전적” 의미보다 우선한다. 어차피 성서에 사용된 고대어들의 경우 “사전”은 사실 용례들을 모아 놓은 렉시콘(lexicon)에 불과하다.⁵⁾ 여러 용례 중 어떤 것이 해당 본문의 문맥과 가장 근접하는지를 가늠하여 판단하는 일이 번역 작업의 핵심인데, 신약에서 구약이 사용된 본문이라면 원 본문의 문맥보다 더 중요한 용례는 있을 수 없다.⁶⁾

징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그레코-로마 문화와 제2성전기 유대교라는 토양 위에서 이제 막 움을 틔웠던 초기 기독교의 문화적 정황과 독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성서의 상호본문성은 중요한 요소다. 이를테면, 사해 사본 혹은 랍비 문헌에서 구약성서를 인용하거나 인용하는 방식과 신약성서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관련된 논의는 G. K. 빌, 『신약의 구약사용 핸드북』, 163-221 참조.

- 4) 타우너(P. Towner)는 신약 내 본문상호성, 특히 반향의 사례들에 주목해서 번역의 문제를 검토했다. “본문상호성: 번역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양재훈 역, 『성경원문연구』 20호 별책 (2007), 137-154.
- 5) 렉시콘은 말 그대로 어휘의 용례들을 모아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한 것이다. 만약 어휘의 용례가 아주 적거나, 단 하나인 경우(*hapax legomenon*) 렉시콘은 거의 쓸모가 없다. 렉시콘이 제시하는 의미들은 실제 어휘들이 지녔을 의미의 부분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므로 번역에서 렉시콘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 6) 신약에 사용된 구약의 원 문맥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변수는 상당수 신약 저자들이 사용한 구약 본문이 칠십인역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우리말 구약성서 역본은 히브리어 본문, 그 중에서도 이른바 ‘맞소라 본문’(BHS)만을 대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단, 『공동번역 성서』는 부분적으로 칠십인역을 우선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고 히브리어 본문의 이형을 난외주에 표기했다—번역 성서만을 읽는 독자는 신약 저자가 인용했던 구약 본문에 접근할 수 없다. 서구에서는 주요한 언어별로 별도의 전체 칠십인역 번역본이 출판된 지 오래이며, 진전된 사본 비평과 본문 확정에 따라 계속 새로운 번역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06년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칠십인역 창세기』, 정태형, 강선남 역 (칠곡군: 분도출판사)가 유일하다. 비유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칠십인역이 사용된 신약 본문을 주해, 설교할 때 상당수 청중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던 중세 교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신약 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는 구약이 사용된 신약 본문을 표기하고 인쇄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우리말 번역 성서들의 취약성을 지적할 것이다. 그런 다음 번역 성서만을 읽는 독자들이 상호본문성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서 인쇄에 있어서 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를 제안할 것이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구약이 사용된 신약 본문을 번역할 때 원 문맥에 대한 고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히브리서 12:15를 견본으로 삼아 몇몇 역본들에서 원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번역이 발견되고, 그것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것이다. 번역은 각 신약 책 전체의 중심 주제, 구약 사용의 패턴, 그리고 논지 전개 과정까지 고려한 충분한 신학적, 문학적 연구의 총화의 결과이다. 히브리서 12:15의 번역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기존 번역의 약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2. 신약성서에서 상호본문성의 표기 문제와 제안

2.1. 기존 우리말 번역 성서들에서 상호본문성의 표기 방식

지금까지 출판된 우리말 번역 성서들에서 상호본문성을 표기하는 방식은 인쇄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⁷⁾

-
- 자가 인용하고 해석하는 구약 본문을 우리말 성서의 독자는 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독자 스스로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 저자와 교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말 칠십인역 번역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상혁은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과 관련한 쟁점을 *La Bible d'Alexandrie*의 번역 예를 통해 검토했다. 이상혁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알렉산드리아 성경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3 (2012), 66-87.
- 7) 단, 각종 스테디 바이블, 해설성경, 주석성경,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관주성경』 중에서 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난외주에 인용, 암시, 반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에서 이미 출판된 스테디바이블의 번역인 경우 내가 여기서 다루는 문제를 ‘해설’(notes)을 통해 거의 다 해결했다. 다만, 외국어 스테디 바이블, 즉 외국어로 일단 번역된 성서 본문에 해설을 더한 스테디 바이블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그것이 가진 장점을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말 번역자들이 성서 본문(과 그 인쇄 방식)은 버리고 대신 『개역개정』(과 그 인쇄 방식)을 그대로 대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서 본문 자체에서 상호본문성을 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든 큰 차이가 없고 아래의 논의는 주로 인쇄된 성서 본문에서의 표시 문제를 다루므로 우리의 상황에 적실하다. 우리말 해설 성서에 관한 상세한 검토와 제안은 『성경원문연구』 9 (2001)에 실린 여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두 논문, 즉 민영진,

(가) 저자 혹은 내러티브 내 화자가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나 화자가 다른 문헌을 인용할 때 인용된 부분이 본문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말 번역 성서들이 취하는 장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본문 자체에 저자에 의해 사용된 특정한 인용형식—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λέγων), “기록되기를”(γράφεται), “~라고 하셨다” 등—을 충실히 번역함으로써 인용이 분명해진다. 둘째,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에서 줄바꿈을 하고 인용구 전체를 들여 씀으로써 시각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셋째, 위 둘째 장치에 더하여 번역본에 따라 따옴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 대부분 인용된 원문의 출처를 난외주 혹은 난하주에 표시한다. 이처럼 인용형식을 동반한 인용구에 있어서 어느 번역 성서이든 독자가 인용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나) 인용이 아닌 암시나 반향의 경우

인용과는 달리 암시나 반향을 독자가 알아채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말 번역 성서 중 암시나 반향을 본문과 구별해서 표기하는 것은 없다. 단, 역본에 따라 해당 절의 시작 부분에 위첨자로 주(註) 번호를 붙이고 난외주 혹은 난하주에 원문 출처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히브리서 9:4(“금향로”가 언급됨) 본문에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난하주를 달아 역대하 26:19와 에스겔 8:11을 표기했다.⁸⁾ 다른 암시와 반향에는 없던 난하주를 왜 이 구절에만 달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난하주가 달린 경우에도 그 신학적, 문헌적 근거가 모호하다. 역대하 26:19는 웃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만진 내용이 고, 에스겔 8:11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스라엘 족속의 일흔 장로들이 각각 손에 향로를 들어 우상에게 분향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 두 구절이 과연 히브리서 9:4에 언급된 “금향로”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가? 기껏해야 모호한 연관성을 가지는 구절들을 난하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모호하고 부정확한 난하주를 달 바에는 차라리 『새번역』을 비롯한 다른 우리말 역본들처럼 암시나 반향에 아무런 표기도 안 하는 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7-40쪽) 그리고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성서—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언”(106-124쪽)은 의미 있는 관찰과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8) 이 난하주는 『개역』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개역개정』 번역자들이 이것을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라, 『개역』에 있던 난하주를 엄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65-100에 따르면, 『개역개정』 출간 후,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개역』의 관주에 있는 많은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만, 히 9:4의 경우 관주 이전에 본문 난하주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차라리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본문성의 표기를 인용의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 독자에게 최선일까?

(다) 특별한 인용 형식없이 구약 본문을 그대로 따와서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조 속에 융합시키는 경우

이 경우는 다른 문헌을 명백하게 인용한다는 점에서 (가)와 마찬가지로 장치의 필요하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가)와는 다르다. 우선 본문 자체에 특정한 인용형식이 없이 인용구가 화자 혹은 저자의 진술 속에 연결되어 있다. 둘째, 대개 이런 경우 인용구의 길이는 한두 단어이거나 매우 짧은 문장이라서 문장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된다. 셋째, 때로는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인용구에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다. 즉, 간접 인용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말 번역 성서 본문에 아무런 인용표시가 없다. 단, 『새번역』을 비롯한 몇몇 역본들에서는 해당 절의 시작 부분에 위첨자로 주(註) 번호를 붙이고 난외주 혹은 난하주에 인용된 원문의 출처를 표기했다. 예를 들어 『새번역』 히브리서 12:15에는 따옴표나 줄바꿈이 없는 대신 주 번호가 붙어 있고 난하주에 칠십인역 신명기 29:18을 표기했다. 난하주조차 없는 『개역개정』과는 달리, 『새번역』을 읽는 독자는 난하주를 유심히 살피면서 상호본문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인용을 인용으로 표기하지 않는 우리말 번역 성서의 체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직접 인용된 부분을 저자나 화자 자신의 것인 양 표기함으로써 독자가 성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날 학문적인 글쓰기에서 인용구를 표기하는 방식과 이 문제를 비길 수 있다. 저자의 말과 저자가 인용한 말을 구분하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세 줄 이하의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큰 따옴표를 붙여 표시하고, 네 줄 이상의 긴 인용은 줄 바꿈과 단락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블록 인용’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둘 다 각주를 달고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직접 인용과 달리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본문의 문장 안에 인용구를 변형하여 자연스럽게 통합하면서 각주에 출처 표기만을 하면 된다. 현재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이 세 가지 방식 중 블록 인용만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종류의 인용을 마치 인용이 아닌 저자 자신의 말인 것처럼 표기하는 셈이다.

둘째, 현재의 난하주 체제로는 어느 부분이 인용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본문을 난하주와 연결해 주는 주 번호가 항상 본문의 해당 절의 맨 앞에 있기 때문이다. 위 학술 논문 작성법의 유비를 빌리자면 간접 인용에 대해서 인용이 발생한 바로 그 지점에 각주 번호를 붙이지 않고 무조

건 문장 끝에 붙이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는 저자가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지 대충 그 주변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역본마다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새번역』 히브리서 12:12의 난외주에는 아무 언급도 없는 반면 『공동』에는 이사야 35:3이 표기되어 있다. 대신 『새번역』 히브리서 12:13 난외주에는 잠언 4:26이 나와 있지만 『공동』은 아무 표기도 하지 않았다. 이 둘을 종합이라도 하듯이 『성경』⁹⁾은 히브리서 12:13에 이사야 35:3과 잠언 4:26 둘 다를 연계시켜 놓았다. 칠십인역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독자에게 이처럼 통일되지 않는 정보는 혼란을 줄 수 있다.

2.2. *Novum Testamentum Graece*의 상호본문성 표기를 참고한 제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말로 번역된 모든 신약성서들이 하나같이 표준 대본으로 삼는 NTG¹⁰⁾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NTG에서 상호본문성을 표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 (가)와 같은 경우에 NTG에서는 따옴표를 쓰지 않는 대신(그리스어에는 따옴표가 없다) 줄을 바꾸고 들여쓰기를 한다. 하지만 따옴표의 유무 말고도 NTG와 우리말 번역 성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인용된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그 중 형태와 어순이 일치하는 부분, 즉 구약 원문과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인용부분을 기울임체로 표시하는 것이다.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컴퓨터 문서 작성기로 ‘복사하기-붙이기’ 작업을 수행하듯이 하지 않았다. 때때로 인용문 중간에 자신들의 말을 삽입하거나 원문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인용문 내에서 기울임체를 사용하면 직접 인용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신약저자가 구약 본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독자에게 이런 표시 방식은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다.

기울임체 표기의 원칙은 일관되게 위 (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문에서 저자나 화자가 “말씀하시기를”이나 “기록되었으되”와 같은 인용 형식

9) 『공동번역 성서』(1977)와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에 이어 17년의 번역작업을 거쳐 2005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가톨릭 교회 공용 성서의 공식 명칭.

10) Barbara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거의 모든 우리말 성서가 대본으로 삼은 제 26판과 제 27판은 본문이 동일하며, 제 28판은 앞의 두 판과 일반서신(약, 벤전, 벤후, 유)을 제외하고는 본문이 동일하다.

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구약의 인용임이 분명한 경우가 있다. NTG는 이것을 기울임체로 표시한다. 줄바꿈이 없더라도 신약 본문 내 구약 인용 부분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독자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도움도 얻는다. 성서 저자가 인용 형식을 사용한 행동 자체는 모종의 신학적 함의를 담고 있다. 아무런 인용 형식 없이 구약을 인용했다라도 거기에는 분명 신학적 함의가 담겨있다. 본문을 읽다가 기울임체로 된 부분을 발견하면 독자는 즉각 그것이 구약의 인용임을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신약 저자는 이 부분을 인용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인용 형식 없이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 성서에 인쇄된 작은 표시를 통해서 독자가 성서 저자와 보다 깊이 교감할 수 있고 그 만큼 성서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면 굳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NTG는 암시와 반향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즉, (나)와 같은 경우에 난외주를 통해 관련된 구약, 그리고 신약 다른 부분의 구절들을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표기한다. NTG 난외주에서 상호본문성을 포함하는 성서 구절들을 표기하는 방식은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하다.¹¹⁾ 예를 들어 난외주에 표시된 구절들 중 인용된 것들은 기울임체로 표시하고, 병행 구절(예를 들어 공관복음의)은 굵은 글자체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기울임체도 아니고 굵은 글자체도 아닌 보통 글자체로 표시된 구절들은 암시나 반향이 되는 것이다. 암시나 반향을 표시하다 보면 『개역개정』 히브리서 9:4의 난외주처럼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인용에 더해진 NTG의 난외주를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NTG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는 권말 부록 중 하나인 “*Loci citati vel allegati*”이다. 여기에는 신약에 인용되거나(기울임체로 표시), 암시 또는 반향된 구약 성서 본문들이 구약 성서의 배열 순으로 색인되어 있다.¹²⁾

이상 설명한 NTG의 상호본문성 표기 체제를 그대로 우리말 번역 성서에 도입할 수 있을까? 결정적인 난점은 없어 보인다. (가)와 (다)의 경우, 즉 명백한 구약의 인용이 있을 때 인용된 부분에 기울임체 표기 대신 큰 따옴표

11) NTG는 제한된 지면에 상호본문성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호와 기호를 사용한다. 그 결과 엄청난 정보를 담고도 웬만한 우리말 신약성서보다 얇은 비평본을 인쇄할 수 있었다. 난외주 사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NTG²⁸, “Introduction”, 82*-84* 참조.

12) NTG²⁸, 836-878. 거기에는 구약만이 아니라 구약 외경과 몇몇 그리스 문헌도 들어 있다. 한편, GNT(*Greek New Testament*)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Index of Quotations”(구약 성서 배열 순과 신약 성서 배열 순 두 가지)와 “Index of Allusions and Verbal Parallels”(구약 성서 배열 순)라는 부록으로 제공한다. GNT에는 히브리어 본문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칠십인역 본문인 경우 따로 “LXX”라는 표시를 첨가했다. GNT와 NTG가 표기한 상호본문성의 출처 구절 목록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 우리말 정서법에 좀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경우,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같은 내러티브 장르에서 직접 화법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따옴표와 변별 기능이 겹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발화 부분을 따옴표 안에 넣었는데, 그 진술 속에서 구약이 인용되는 경우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를 넣어야 한다. NTG 체제 도입에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난외주에서 출처 본문 표기 방식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부호들이 생소하다는 점이다. 반면 현재 대한성서공회 발간 『관주성경』의 관주에 쓰이는 “비”(비교?)와 “보”(보충?), 두 약어로는 불충분하다.¹³⁾ 최소한 ①암시나 반향, ②병행, ③인용, 이 세 가지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NTG 난외주 표기법을 약간 간소화하고 경제적이고 시인성이 좋은 기호들을 고안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히브리서 12:15에서 인용 본문의 번역 문제와 제안

사용된 구약 본문의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더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신약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제 우리는 상호본문성이 작동하는 성서 본문의 번역 과정에서 원 본문의 문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논증하기 위해 그러한 고려를 거쳐서 번역이 보완되는 과정을 예시할 것이다.

3.1. 히브리서에서의 구약사용 맥락 안에서 12:15

신약성서 안에서도 히브리서는 구약 인용을 유난히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구약 인용이 비교적 잦은 로마서의 경우 전체 7,111개 단어 중 구약 인용에 속하는 단어는 646개, 비율로는 9%가 갓 넘는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전체 그리스어 단어 4,953개 중 구약으로부터 인용된 단어는¹⁴⁾ 731개이며, 비율로는 14.8%이다. 스무 단어에 세 단어 꼴로 인용이 등장하는 셈이다. 암시나 반향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잦은 상호본문성을 어떻게 번역으로 담아낼 것인가?

히브리서 12:15는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사례이다. 우선 NTG²⁸⁾에

13) 김정우는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관주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과 새로운 전망-시편 2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8 (2006), 23에서 우리말 『관주성경』의 관주가 “건실하고 유익하며 탁월한 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14) NTG²⁸⁾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단어를 모두 세었음.

따르면 이 구절에는 구약 본문(칠십인역 신 29:17)이 암시나 반향이 아닌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히 12:15하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NTG²⁸ μή τις ρίζα πικρίας ἄνω φύουσα ἐνοχλῆ καὶ δι' αὐτῆς
히 12:15하 μιανθῶσιν πολλοί

LXX¹⁵⁾ μή τις ἐστὶν ἐν ὑμῖν ρίζα ἄνω φύουσα ἐν χολῆ καὶ
신 29:17하 πικρία

위 대조표를 보면 히브리서 12:15하반절의 첫 일곱 단어가 모두 칠십인역 신명기 29:17하반절로부터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일곱 단어에서 두 본문이 완전히 문자적으로(*verbatim*)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선 칠십인역에서 종속절 전반부에 있는 주동사 ἐστὶν을 히브리서 저자는 보다 실질적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 ἐνοχλῆ로 대체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사실 칠십인역에서 부사구였던 두 단어 ἐν χολῆ를 대신한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칠십인역 본문의 부사구 ἐν ὑμῖν을 생략했는데 아마 히브리서 12:15의 맨 마지막 단어이자 주어인 πολλοί가 의미상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사 ρίζα를 바로 뒤에서 수식하는 속격 명사 πικρίας가 원래 칠십인역에서는 ἐν χολῆ와 함께 문장 맨 뒤에서 부사구를 형성했었다.¹⁶⁾

이런 차이점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구약 본문이 통째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된 구절의 길이가 한 절 전체가 아니라 겨우 일곱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이라고 간주될 수 없는가? 이 일곱 단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흔한 어휘들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인용한다는 특별한 의식 없이 단지 그것들을 임의로 조합해서 자신의 논지를 전달했던 것일까? 또는 신명기 본문인 줄은 알았지만 일부러 원문맥을 무시하고 한두 개의 표제어(catchword)만을 이용했던 것일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πικρίας 하나를 제외하고 신명기 29:17의 일곱 단어가 배열된 순서 그대로 사용된 현상을 임의적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일곱 개 중 다섯 개는 순서와 형태가 완

15) 칠십인역 본문은 다음을 사용하였음. J. W. Wevers, ed., *Deuteronomium,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vol. III: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16)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G. L. Cockerill,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2), 635-636 참조.

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신명기 29:17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의 원 문맥을 모르거나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성서의 권위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히브리서 12:15의 번역에 있어서 신명기 29:17의 문맥과 인용된 구절이 그 문맥에서 가졌던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히브리서 12:15하반절에 사용된 어휘들은 각각의 사전적, 상식적 맥락만이 아닌, 신명기 29:17의 정확이 반영된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여러 우리말 역본들에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두 어휘, “쓴 뿌리”와 “괴롭게 하다”를 통해 그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3.2. 히브리서 12:15에서 두 구절의 번역 문제: “쓴 뿌리”와 “괴롭게 하다”

3.2.1. “쓴 뿌리” → “쓴 열매를 맺는 뿌리”

먼저 ῥίζα πικρίας를 검토해 보자. 『개역개정』 외에도 『바른성경』, 『새번역』, 『쉬운성경』, 『우리말』 등이 이 명사구를 “쓴 뿌리”라고 번역했다.¹⁸⁾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리스어에 대한 문자적인 번역이고, 따라서 정확한 번역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세 가지의 문제가 들어 있다.

첫째, “쓴 뿌리”는 엄밀히 말해서 문자적 번역이 아니다. πικρίας는 형용사가 아니라 속격명사이며,¹⁹⁾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쓴 맛의 뿌리”이다.²⁰⁾ 그리스어 구문론에서 두 명사가 연이어 있고 특히 뒤에 있는 명사가 속격일 때 종종 “묘사의 속격”(genitive of description)으로 간주하여 마치 형용사인 양 번역한다.²¹⁾ 하지만 그것은 명사 속격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이

17) 예를 들어, 1:5-13에 인용된 일련의 구약 본문들(시 2:7; 삼하 7:14; 시 97:7; 104:4; 102:25; 110:1)에서 발화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설정한다든지, 3:7-11에서 시 95:7-11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기술함으로써 구약 본문의 신적 권위를 전제한다.

18) 『공동』과 『현대어』는 “독초”로, 『성경』은 “쓴 열매를 맺는 뿌리”로 옮겼다.

19) 이 속격 명사는 원래 신명기에는 여격 명사가 결합된 전치사구였다(ἐν πικρία).

20) 영역본들 대부분은 “a bitter root”(NIV, NET) 대신 “the root of bitterness”(KJV, NASB, NRSV, NLT, ESV, HCSB)라고 옮김으로써 그리스어의 구문과 그 뉘앙스를 그대로 보존했다. ESV의 경우에는 아예 이 단어에 따옴표를 붙여서 일상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문맥, 즉 구약 성서의 문맥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넘치지 표현했다. 영어 ‘bitterness’는 쓴 맛뿐 아니라 고통을 암시하는 추상명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욱 적합하다. 그것을 우리말 “쓴 맛의 뿌리”로 옮기면 그런 복합적인 뉘앙스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쓴의 뿌리”라는 표현은 우리말 어법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21) BDF §165 (“the genitive of quality”);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며, 늘 그렇게 간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보더라도 속격 명사를 항상 묘사적으로 번역할 수는 없는 예가 많다.²²⁾

명사 ῥίζα 자체는 용례상 “뿌리”와 “썩”, 혹은 “순”(筍)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²³⁾ ῥίζα πικρίας를 수식하는 분사구 ἄνω φύουσα(“위로 돌아나다, 자라나다”)를 같이 읽으면 “위로 돌아나는 뿌리”보다는 “위로 돌아나는 순”이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택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히브리서 저자가 신명기 29:17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어가 שרש 라는 사실 때문이다. 다만, “위로 돌아나다”를 어떤 식으로 “뿌리”와 관련짓고, 그것을 번역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간결해 보이는 “썩 뿌리”라는 번역이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신명기 29:17의 문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명기 29장은 “호렘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다(신 29:1). 모세는 40년 광야 방랑을 지나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호렘 산에서의 처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13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한다. 특히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에 대한 경고이다. 17절은 18절과 짝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상반절에서 가나안 토착신 숭배를 경계하고 나서 그러한 배교 행위의 근원인 영적, 정신적 타락을 하반절에서 이렇게 지목한다: “너희 가운데 어떤 뿌리가 독하고 쓰게 돌아나지 않도록 하라”.²⁵⁾ 이 비유적 표현의 의미는 18절에서 밝혀진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 속으로 자신을 달래며

Rapids: Zondervan, 1996), 79-80 (“Decriptive Genitive”); 특히 저윅(M. Zerwick, *Biblical Greek*, 6th ed. [Rome: Gregorian & Biblical Press, 1963], §40)은 이 속격을 “히브리적 속격”(Hebrew Genitive)이라고 부르면서 썩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

22) 예를 들어 1:3에 모두 다섯 개의 ‘명사+속격명사’ 구문이 나오는데 그 중 자연스럽게 형용사적으로 번역되는 것은 하나 혹은 둘뿐이다. 특히 τὸ ῥήμα τῆς δυνάμεως의 경우 많은 영역본들과 우리말 역본들이 “능력있는 말씀”(powerful word)이라고 옮긴 데 반해서 『개역개정』은 오히려 “능력의 말씀”으로 번역했다.

23) 해치와 레드패스(E. Hatch and H.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Oxford: Clarendon Press, 1906], s. v. ῥίζα)에 따르면 칠십인역에서 ῥίζα는 거의 항상 히브리어 שרש의 상용어이다. 하지만, 사 11:1에서만큼은 שרש와 שרש 둘 다 ῥίζα로 번역되었다. 계 5:5도 아마 이것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BDAG는 성서의 이 두 용례 외에 몇몇 고전 문헌에서 ῥίζα가 “썩”을 의미하는 용례를 제시한다.

24) 실제로 일링워스(P. Ellingworth)는 이것에 근거하여 “root” 대신 “shoot”쪽에 무게를 둔다.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664.

25) 칠십인역 본문에 대한 필자의 사역. 이하 모든 칠십인역의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사역이다. 절 번호는 칠십인역의 것을 따랐다.

말하기를,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의 잘못 가운데 행할 것이고 그리하여 죄인이 그의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뻔뻔하고도 어리석은 교만이 바로 17절에서 비유한 “담즙과 쓴 맛을 내는 어떤 뿌리”의 구체적 사례인 것이다.

명사 $\pi\kappa\rho\acute{\iota}\alpha$ 의 사전적 의미는 쓴 맛을 내는 성질이다. 이것이 $\rho\acute{\iota}\zeta\alpha$ 와 결합하여 적어도 두 가지 뜻을 표현할 수 있다. 뿌리 자체의 쓴 맛이거나 혹은 뿌리에서 돋아나와 맺어진 열매의 쓴 맛이 그것이다. 신명기 29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 장의 후반부에서 모세는 이런 뿌리, 즉 마음의 부패와 번역이 자라나서 배교와 우상 숭배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12:15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이것이 배교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근접 문맥, 그리고 보다 넓은 문맥까지 살펴보면 그 점은 확실해진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배교 주제는 이미 히브리서의 논지가 전환되는 중요한 두 지점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6:1-8; 10:26-31).²⁶⁾ 근접 문맥의 관점에서 보면, 15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16-17절에서 배교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망령된 자”로 일컬어지는 에서처럼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이처럼 $\rho\acute{\iota}\zeta\alpha$ $\pi\kappa\rho\acute{\iota}\alpha\varsigma$ 의 의미는 신명기 29:17의 문맥과 잇닿아 있다. 단순히 “쓴 뿌리”라는 번역은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기에 불충분하다. 뿌리의 맛이 쓴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쓰다.

혹자는 그래도 “쓴 뿌리”가 번역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른다. 원문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내지는 못해도 원문의 두 단어를 우리말 두 단어로 간명하게 대응해 주기 때문이다. 원문과 인용출처의 문맥까지 염두에 두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주석 등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역을 재고해야 할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번역 때문에 성서 저자의 의도를 오해한다. 다시 말해서 성서나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게 우리말 “쓴 뿌리”가 주는 심상(心想)에 영

26) 6:1-8의 말미에 소결론을 대신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채소를 내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의 비유를 들었다. 이것은 12:15의 뿌리를 뿌리 그 자체로서보다는 열매와 연관시켜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또한 10:30에서 저자는 구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신 32:35, 36이었다. 12:15에서 인용한 신 29장과 대동소이한 관점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두 출처의 위치도 그리 멀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히 12:15의 ‘μή τις ... 가정법’(“~하지 않도록”)과 유사한 구문이 3:12와 4:1에도 나타나고 각각의 내용도 배교에 대한 경계를 함축하고 있다.

향을 받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곡해가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할 수 있다. 필자가 들었던 여러 설교와 기독교 신앙서적에서 “쓴 뿌리”는 신명기 29:17은 물론 히브리서 12:15와도 전혀 무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목회상담의 정황에서 “쓴 뿌리”는 종종 청중이나 내담자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일컫는 ‘성서적’ 용어로 등장한다. 어린 시절 불행한 경험에 얽힌 정신적 상처라는 쓴 맛을 내는, 고통의 결정체인 ‘뿌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괴감, 열등감, 죄책감 등 ‘쓴’ 열매로 나타나므로, 그러한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경험을 “쓴 뿌리”라고 부른다.²⁷⁾ 아마도 “쓴 뿌리”라고 번역한 우리말 성서 번역자들이 이런 방식의 곡해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맥을 이탈한 성서읽기의 한 사례가 되어버린 이 번역을 이제라도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ρίζα πικρίας*의 문자적 번역은 “쓴 맛의 뿌리”이다. 하지만 신명기 29:17을 염두에 둘 때 ‘뿌리의 맛이 쓰다’는 의미보다는 그 뿌리로부터 “위로 돌아난” 식물의 열매, 즉 배교의 행위가 고약하다는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말 역본 중에서 이런 의미를 비교적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는 역본이 있다. 바로 『성경』의 “쓴 열매를 맺는 뿌리”이다.²⁸⁾ 나는 이 번역이 위에서 논의한 “쓴 뿌리”의 여러 문제점을 대체로 극복하게 해 준다고 믿는다.

3.2.2. “괴롭게 하다” → “문제를 일으키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ἐνοχλή*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단어의 원 출처인 신명기 29:12의 칠십인역 사본들 중에는 이문(variant)이 존재하며 히브리서에도 소수의 이문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본문비평적 검토는 우리말 번역의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다수 학자들의 판단을 따라 히브리서 저자가 칠십인역의 *ἐν ὀχλή*를 *ἐνοχλή*로 바꾸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겠다.

흥미롭게도 앞서 *ρίζα πικρίας*를 “쓴 뿌리”로 번역했던 역본들 대다수가 *ἐνοχλή*를 “괴롭게 하다”로 옮기고 있다.²⁹⁾ 이 번역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27) 인터넷에서 “쓴 뿌리”로 주제를 검색을 하면 이런 용례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오광복, “내적치유-쓴 뿌리의 치유”, 『크리스찬저널』 2011. 06. 16. <http://www.kcijlogos.org/news/articleView.html?idxno=6773>, 2016년 7월 31일 검색.

28) 이 번역은 『공동』, 『새번역』, 『쉬운성경』 등에서 신 29:18의 번역과 유사하다(“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 『개역개정』과 『바른성경』은 “독초와 썩의 뿌리”, 『우리말성경』은 “독초와 썩을 만들어 내는 뿌리”, 『현대어성경』은 “죄악의 싹”이라고 각각 옮겼다. 영역본들은 대체로 “a root bearing poisonous and bitter fruit” (ESV)와 유사하게 번역했다.

29) 『개역개정』, 『바른성경』, 『새번역』, 『쉬운성경』. 비슷하지만 『현대어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되다”로 옮겼고, 다른 역본들은 이들 역본과 대비되는 번역을 했다. 즉, 『우리말』(“문제를 일으키다”)과 『성경』(“혼란을 일으키다”)은 상통하는 면이 있고, 『공동』(“분란을 일으키

이다.

첫째, 동사 ἐνοχλέω의 사전적 의미에 “괴롭게 하다”는 포함되기 어렵다. 세이어(Thayer)의 렉시콘에 따르면 이 동사의 어원은 ὄχλος이다.³⁰⁾ 군중 가운데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짜증스러움, 거슬림, 신경질 같은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데서 이 동사의 의미가 발전했다고 본 것이다. 성서에서든 성서 외 문헌에서든 이 단어의 일관된 의미는 “혼란스럽게 하다, 소란을 피우다, 문제를 일으키다” 정도이다. 육체적, 심리적 고통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괴로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괴롭게 하다”는 어디에 근거한 번역일까? 비록 명확한 증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추론을 제시할 수는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칠십인역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꾸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인용이다보니 바꾸어 인용된 히브리서보다는 그것의 출처인 신명기의 내용에 더 큰 권위를 두고 번역했을 수 있다. 전치사구 ἐν ὀχλῇ의 명사 ὀχλή는 “담즙, 쓴 액체”, 그리고 “독”을 의미할 수 있다. 어쨌든 몸 속에 섭취되었을 때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약성서 저자가 구약성서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인용하는 경우, 신약 본문에 있는 명백한 그리스어 어휘와 구문을 무시하고 단지 구약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할 수는 없다. “괴롭게 하다”라는 번역이 나오게 된 또 다른 근거는 앞서 다룬 “쓴 뿌리”일 수 있다. 단순히 맛이 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은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대로 “쓴 뿌리”는 정당한 번역이 아니므로 “괴롭게 하다”라는 번역도 그만큼 취약하다.

셋째, “쓴 뿌리”와 마찬가지로 “괴롭게 하다”라는 오역에는 문헌학적 차원 이상의 목회적, 실천적 폐해가 따라온다. 신명기에서든 히브리서에서든, 이 경고가 향하고 있는 대상, 그것을 새겨 들고 실천해야 할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본문에 문법적 주어인 τις가 단수이긴 하지만 이것은 부정(不定, indefinite)대명사로서 부정문(否定文, negation)에서 “누구든지, 아무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만든다.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주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돌아나듯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설사 개인이 행했더라도 그것의 결과는 그 자신에게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파급된다. 이 점은 이 문장의 말미에 οἱ αὐτῆς μιανθῶσιν πολλοί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괴롭게 하다”로 번역한 몇몇 역본들은 그 타동사의 목적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다)은 다소 생뚱맞다. 영역본들은 대부분 “cause trouble”이라는, 두루뭉술하지만 **공동체적 상황**에 잘 들어맞는 번역을 택했다(단, KJV는 동사 “trouble”을 사용해서 “괴롭게 하다”에 근접한다).

30) J. H. 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9), s. v. “ἐνοχλέω”.

써 독자로 하여금 그 목적어가 “쓴 뿌리” 혹은 “쓴 뿌리를 가진 사람” 자신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마치 “쓴 뿌리”의 괴로움은 그 사람 개인이 당하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신명기 29:17을 인용한 히브리서 저자가 신명기 29장의 정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개인의 차원으로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반대로 한 사람의 배교, 한 사람의 이탈은 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다. 만약 “괴롭게 하다”라는 번역을 고집한다면 그 대상이 공동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³¹⁾

이상의 이유로 “괴롭게 하여”라는 주요 역본들의 번역은 부적합하다. 기존의 역본 중 적합한 번역을 꼽으라면 『우리말』(“문제를 일으키다”) 혹은 『성경』(“혼란을 일으키다”)이다. 이 표현은 의미상 충분히 포괄적이면서도 위에서 제시한 여러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3.2.3. 새로운 번역제안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상호본문성을 반영한 히브리서 12:15의 새로운 번역과 표기 방식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위로 돌아나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난하주: *칠십인역 신 29:17)

4. 나가며

신약에서의 구약 사용 연구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신약성서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신약의 저자가 어떤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특정한 말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때와 그렇지 못할 때 해당 신약 본문의 해석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신약에서의 구

31) Ἐνοχλέω를 “혼란스럽게 하다”, 또는 “분란을 일으키다”로 번역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deSilva를 비롯한 여러 주석가들이 제시했다. 그것은 15하반절의 두 동사(ἐνοχλέω, μισῶ)가 14절의 두 가지 권면인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더럽혀지지 말아야 하듯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D. deSilva, *Perseverance in Gratitude: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00), 457.

약 사용 연구의 성과를 통해 성서 해석의 외연과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해석의 총화인 성서 번역도 더 정확해질 수 있다.

한편, 그런 번역이 독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또 독자 각자가 스스로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용이라는 요소를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번역 신약성서들의 대본인 NTG는 상호본문성을 효율적으로 표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우리말 번역 성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난외주, 즉 관주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시인성이 좋으면서도 상호본문성을 충실히 표기하는 체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상호본문성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표시해주는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읽기와 연구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³²⁾

상호본문성은 단지 성서를 어떻게 인쇄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번역 자체에 상호본문성이 반영되지 않을 때 오역, 오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15의 경우 칠십인역 신명기 29:17이 인용되었는데, 기존 번역 특히 『개역개정』은 그것의 본래 문맥의 의미와 신학적 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여기에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며 상호본문성이 번역과정에 작용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주제어>(Keywords)

히 12:15, 상호본문성, 난외주와 난하주, 칠십인역, 번역.

Heb 12:15, Intertextuality, Outer and inner margins, The Septuagint,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6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32)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성서는 또 하나의 스테디 바이블이 아니다. 비록 한국적 성서신학의 성과를 한 권의 스테디 바이블에 담아내는 일은 무척 가치가 있는 과업이긴 하지만 말이다. 앞서 각주 11번에서 말했다시피, 상호본문성을 정확하고 충분히 표기한다고 해서 성서가 꼭 두꺼워질 필요가 없다. 한국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성서를 소지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상호본문성을 언급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기 위해서 더욱 **예전용 성서**에 상호본문성 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우,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관주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과 새로운 전망—시편 2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8 (2006), 7-23.
-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 오광복, “내적치유 – 쓴 뿌리의 치유”, 『크리스찬저널』 2011. 06. 16, <http://www.kcjlogos.org/news/articleView.html?idxno=6773>, 2016년 7월 31일 검색.
-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성서—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9 (2001), 106-124.
- 우상혁,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알렉산드리아 성경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3 (2012), 66-87.
-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65-100.
- 필립 타우너, “본문상호성: 번역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양재훈 역, 『성경원문연구』 20호 별책 (2007), 137-154.
- Beale, G. K., 『신약의 구약사용 핸드북』,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 Beale, G. K. and Carson, D. A., eds., *Commentary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 Cockerill, G. L.,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2.
- deSilva, D., *Perseverance in Gratitude: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00.
- Ellingworth, P.,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 Hatch, E. and Redpath, H. A.,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Oxford: Clarendon Press, 1906.
- Hays, R.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Thayer, J. 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9.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Zerwick, M., *Biblical Greek*, Rome: Gregorian & Biblical Press, 1963.

<Abstract>

**Intertextuality and Biblical Translation:
A Proposal for Translating Hebrews 12:15b in Korean**

Jaechon Cho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e use of the OT in the NT is such a widespread phenomenon that exegetes, for the last decades, have taken much care in identifying various patterns of the use and applying them in Biblical expos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translator of the Bible should examine carefully the ways in which the OT passages are used in the NT, and reflect on the actual translation whatever insights garnered from such studies. I approach this issue from two directions.

First, the issue of proper signification of the OT passages that are used in the NT merits our attention. I find the signification of intertextuality in major printed Korean translations neither accurate nor adequat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is riddled with singular problems while other versions share common weaknesses. I suggest we employ the reference system of *Novum Testamentum Graece* together with its organization of inner and outer margins.

Second, I take Hebrews 12:15b as a test case for examining intertextuality in the NT and for applying whatever observations in translating the Greek text into Korean. Again, *NKRV* and some other versions fall far short of presenting the unique nuances couched in intertextuality. The context of the original passage, Deuteronomy 29:17b (LXX) in this case is of prime importance in deciding how we should put Hebrews 12:15b in Korean. Other considerations such as lexical studies, syntax, textual criticism of the original passage are all in play as well.

Every reader of the Bible is encourag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Biblical text as much and as deeply as possible. Korean Christians will be aided greatly in that regard by a translation that reflects intertextuality fully and provides accurate signification of it.